아주대의료원소식

2003 7

통권 제 102호 / 발행일 2003. 7. 1 / 발행인 겸 편집인 姜信榮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442-721) 전 화 (031) 219-5114

진단방사선과 외래진료 개설

— 2003년 7월1일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는 2003년 7월1일부터 뇌혈관질환 및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중재적 치료와 배액관 관리, 하지심부정맥 혈전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외래진료를 개시합니다.

이는 각 질환에 대한 해당 임상과와의 원활한 협진체계 구축과 중재적 시술에 대한 진료 대기시간 및 동선의 단축, 중재적 치료를 직접 시술하는 주치의의 상세한 추후관리 제공 등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진료시간은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를 담당하는 김선용 주임교수가 월, 화, 목요일 오전 진료하며, 혈액투석 환자 중재적 치료, 배액관 관리, 하지심부정맥 혈전증의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는 원제환 교수가 월, 수, 금요일 오후에 진료합니다. 또한 수, 금, 토요일 오전과 화, 목요일 오후에 일반 진료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환자 여러분에 대한 양질의 진료제공과 진료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단방사선과 외래접수 전화 (031) 219-5823

• 목 차 •

2 포커스
삼차신경통 알코올파괴술 1,000건 돌파

3 선인재 칼럼
살 맛 나는 후반전

4 의학리포트 I
임신성 당뇨병, 출산 후 살 빼야 당뇨병 예방

5 내가 꿈꾸는 의료인
작은 사랑의 힘

6 진료교실
연령대별 여성 건강관리

8 잊을 수 없는 환자
조금 더 아픈 마음을 잘 이끌어 주었더라면…

9 음식 속 건강
오염된 먹거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10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신경통증클리닉 체험기

11 신간 안내 현봉학의 진단혈액학

12 병동 클릭 CCU

14 의학리포트 II
애완동물에 의한 알레르기질환 조심!

15 Zoom & Zoom 최진혁 교수

16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투석환자의 선택

17 AMC NEWS

22 건강 Q&A
- 임질
- 폐결핵 후유증에 인한 기침

24 스포츠의학 수영

25 잘못된 건강상식
암 환자는 육식을 피해야 한다?

26 협력병원 탐방 의왕선병원

27 유명인과 질병 유방암

28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30 전문클리닉 소식

31 진료시간표

아주대학교의료원

포 커 스

삼차신경통 알코올파괴술 1,000건 돌파

얼굴에 찌릿찌릿 전기가 오듯 격렬한 통증이 오는 삼차신경통. 주로 코 아래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치아나 잇몸 통증으로 오인하기 쉬운 삼차신경통의 원인은 얼굴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인 삼차신경의 이상이다. 통증기간이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1분 정도로 짧던 길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들 한다. 심한 경우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삼차신경통.

아주대병원 통증클리닉이 최근 이러한 삼차신경통의 가장 최선의 치료방법인 「알코올파괴술」 천건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세계 최다 시술 건수이기도 하다.

통증클리닉 김찬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91부터 2003년 6월까지 약 12년 동안 삼차신경통으로 알코올 파괴술을 시술받은 환자 1,029명을 분석한 결과, 투약 없이 무통증 상태 기간이 평균 1년6개월 이상이었으며, 무통증 최장기간은 5년 9개월이었다고 한다. 신경의 재생으로 인해 재시술을 받은 이후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시술후 부작용은 약 4%에서 얼굴 감각 저하 등의 일시적인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환자 천명의 성별,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남자가 319명, 여자가 710명으로 여자가 남자 보다 약 2.2배 더 많았으며, 연령은 10대 미만 2명(0.2%), 10.20대 7명(0.7%), 30.40대 194명(18.9%), 50대 이상 826명(80.2%)으로 대부분 50대 이후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물요법 혹은 약물요법후 부작용으로 신경파괴술을 원했던 환자들 중 50대 이상이 80%를 차지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약물에 의한 통증조절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알코올파괴술이란 부분마취후 방사선조영으로 정확한 위치를 보면서 얼굴쪽에서 바늘을 삼차신경이 뇌에서 나오는 부위까지 넣은후 국소마취제로 테스트를 시행한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와 일치하는 신경의 일부만을 선택, 「신경파괴제, 알콜」을 주입하여 문제가 되는 신경만을 파괴하여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다.

따라서 흉터가 남지 않으며, 재발후 반복시술이 가능하고, 문제가 되는 말초신경만을 선택하여 파괴하므로 얼굴의 감각저하 부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100% 통증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김찬 교수는 『삼차신경통은 인구 10만명 당 4~5명 정도로 나타나는 드물지 않은 질병으로 통증이 극심하지만 다행히 통증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만, 환자의 나이, 동반된 질병, 건강상태, 이전 치료경험 등 다양한 환자상태를 고려해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시술해야 하므로 의사의 숙련도와 많은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선인재 칼럼

살 맛 나는 후반전

우리 집 큰 아이는 힘이 넘치고 건강하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특히 축구가 좋아 점심시간을 아껴 축구를 하니 싸 가지고 간 도시락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일이 많았다. 지금도 점심시간이 30분만 지나도 못 참는 나에겐 아들의 이런 하루 일과가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건강하니 바쁜 생활 속의 엄마에겐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큰 아이가 신생아일 때다. 갓 태어난 아이가 신비롭고 감탄스럽기는 하나 밤에 자다가도 자주 일어났던 기억이 난다. 원래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지라, 아기가 제대로 숨을 잘 쉬고 있는지가 걱정스럽고 불안해져서 벌떡 일어나 새근거리는 것을 보고야 잠이 들곤 했다. 그런데 문제는 낮이고 밤이고 갓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 것이었다. 분명 소아과 교과서에서 신생아의 수면시간은 18~22시간이라 배웠건만 실제 잠자는 시간을 따져 보아도 기껏해야 10시간 내외였다. 걱정스러워 6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셨던 소아과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건강한 아기를 가지고 괜한 걱정이라며, 「네가 의사냐」 하시는 꾸지람을 듣고서야 안심을 했던 생각이 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초보 엄마가 열이 많은 아이를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겹겹이 싸매주어 너무 더워서 잠을 잘 못잔 것 같다.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걱정도 아닌 일까지 걱정을 하면서, 미숙한 솜씨로 바쁘게 허겁지겁 살아온 것 같다.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그것을 자신이 타고난 복이 많다 위로해 가며… .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나이까지 해놓은 것도 없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든다. 요샌 「정말 몸도 예전과 다르구나」 하면서 세월이 흘렀음을 느끼게 한다.

이제 내 인생의 마라톤 거리에서 반쯤은 뛰어온 것 같다. 전환점을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지난 해는 미국연수로 학교를 비우고 돌아오니 전반전을 뛰고 하프타임을 지내고 다음 후반전에 돌입하는 기분도 든다. 이제부터라도 소득 없는 걱정과 미숙함을 떨쳐버리고 후반전을 멋지게 뛰어야 할텐데.

해외연수 중엔, 한국을 떠나 있으니 어수선하고 모순 덩어리로 보이는 내 나라가 어떤 때는 자랑스러운 대~한 민국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작년에 한밤 중(시차 때문에 미국시간 새벽 2~3시에 방송) 축구 채널에서 방송되는 월드컵경기를 혼자 눈을 비벼가고 TV 앞으로 가서 지켜본 골~인의 감격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오!

다음은 한국에 남아있는 아주대학교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다. 때론 무심한(또는 욕심부리는)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 주는 미운털, 본인 일만 바쁜 듯 도와주지 않는 얌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론 세우며 요지부동인 고집쟁이들이 어찌나 그립고 보고 싶은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 중에서도 못난 선생에게 한참 아름다운 젊음을 맡기고 밤낮 공부하고, 낑낑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나의 후반전은 충분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다.

초보엄마처럼 걱정 많고 미숙했던 전반전을 끝내고, 완숙되고 여유로우면서도 때론 멋진 골도 펑펑 넣는 짜릿한 후반전이었으면 한다. 때론 상처와 자극을 동시에 주면서도, 지치고 힘들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굴만 보아도 이심전심 위로를 주는 동료들이 있어 나의 후반전은 사는 맛까지 느끼게 한다.

백 은 주 주임교수 / 생리학교실

선인(善仁)이란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한 말로 인을 잘 베푼다는 뜻이다. 의과대학 지하 카페테리아에 있는 선인재(善仁齋)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의학리포트 |

임신성 당뇨병, 출산 후 살 빼야 당뇨병 예방

임신 중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은 분만 후 체중이 증가할 경우 당뇨병으로 이환될 확률이 2배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할 경우 반대로 당뇨병 유병률이 2배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분만 후 체중관리가 당뇨병 예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 451명을 대상으로 분만 후 평균 추적검사기간 3년 이내, 각 군마다 150명씩, 약 3.5 kg 체중증가를 보인 군, 약 4.8 kg 체중감소를 보인 군 그리고 체중변화가 없었던 군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체중증가를 보였던 군은 초기 검사 시 당뇨병이 되기 바로 전단계인 내당능장애*가 9.9%, 당뇨병 3.9%였으나 3년 후 각각 15.1%, 8.6%로 약 2배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체중감소를 보였던 군은 초기 검사 시 내당능장애 16.2%, 당뇨병 11.5%였던 것이 3년후 각각 10.8%, 5.4%로 약 2배 감소했으며, 체중변화가 없었던 군은 초기 검사 시 내당능장애 11.9%, 당뇨병 8.6%가 각각 11.9%, 11.9%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체중감소군의 경우 체중감소로 인해 혈압감소, 혈당감소, 고지혈증 감소 등의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난 반면, 체중증가군은 당뇨병 발생 증가는 물론 심혈관질환과 대사증후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인요소들(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인슐린 저항성 등)이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편,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이 분만 후 5년 이내 당뇨병으로 이환될 확률은 정상산모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남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전적 성향이 강한 임신성 당뇨 여성에서 체중관리를 통해 당뇨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당뇨병 고위험군이나 일반인들이 당뇨병 예방을 위해 평소 체중관리를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세계당뇨병학회(프랑스)에서 구연발표될 예정이며, 지난 5월 한·일 당뇨병학회에서 구연발표됐다.

***내당능장애**

정밀혈당검사로 경구당부하검사를 하는데, 검사방법은 12시간 이상 금식 후 75g의 포도당을 물 300ml에 녹인 다음 이를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신 후 마시기 전 혈당, 마신 후 30분, 60분, 90분, 120분 째의 혈당을 재는 검사다.

그 결과 마신 후 30분, 60분, 90분 때의 혈당치 1개 이상이 200mg/dl을 넘고 2시간 후 140 이상 20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당뇨병 전단계인 내당능장애로 진단한다.

위 내용은 6월9일 MBC 9시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YTN 수도권 뉴스, i-TV 종합뉴스와 6월10일 KBS 뉴스광장, 930 뉴스 등에 방영되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헤럴드경제,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에 게재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의료인

작은 사랑의 힘

히포크라테스의 숭고한 직업정신을 이어받아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의사의 길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5년차 풋내기인데 그동안 참 많이도 변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저년차 때 만났던 어느 할아버지 환자가 생각난다. 말기 폐암으로 한 달에 한번씩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 환자는 폐렴으로 인한 고열과 기침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였다. 폐암과는 달리 폐렴은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므로 회복 후엔 다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회진 때마다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얼마 후부터 환자는 회진시간이면 항상 침대에 정좌를 하고 앉아 『선생님을 기다렸다』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했다.

"이제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픔이 주는 쓸쓸함을 견디고 있을 환자들과 가족들에겐 너그러움과 겸허한 사랑의 감싸 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행히도 입원기간 동안 환자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환자는 환한 미소로 그 동안의 친절한 보살핌에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오히려 내게 가슴 한가득 뿌듯함을 선사하고 퇴원을 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몇 달만에 지병인 폐암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을 하였고, 나는 그 순간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후 겉으로 크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죽음 앞에서의 무능력함과 환자를 잃은 상실감이 무척이나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까지 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나는 자신과 반복된 타협을 통해 그냥 하루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내게도 병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기본적인 생활 하나 하나에도 남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환자의 모습으로 말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삶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 보았고,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는 마음 약한 생각에 가슴앓이도 적잖이 했던 것 같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하루 종일 누워지내면서 혼자 힘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면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거리의 바쁜 걸음들이 문득 그리워지고, 가끔 교정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무작정 부럽기만 한 것이었다.

의사 선생님의 회진시간이 조바심나게 기다려지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간호사 분들의 근무 스케줄이 궁금해질 때마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위로와 사랑의 말들이 그처럼 가슴에 뜨겁게 전해질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나는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작은 사랑 하나를 베푸는데도 주춤해 왔는지 모른다.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의사의 모습이면 다른 부분까지도 능히 채워 줄 수 있을 거라는 성급한 판단으로 마음 한 구석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안고 지내왔다. 이제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픔이 주는 쓸쓸함을 견디고 있을 환자들과 가족들에겐 너그러움과 겸허한 사랑의 감싸 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

오랜만에 새로운 마음으로 책장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조심스레 읽어본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명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중략 — 인간의 생명이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이 형 숙 레지던트 / 내과 4년차

진료교실

연령대별 여성 건강관리

여성 생식기 질환은 대부분 자각증세가 없어 증세가 느껴질 때에는 이미 상태가 심각해져 있다. 가임기 여성이라면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은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부인과는 임산부나 큰 질병을 앓아야만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 여성이 많다. 7월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연령대로 본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해 산부인과 장기홍 교수로부터 들어본다.

사춘기 전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가끔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엄마와 같이 오면 질로부터의 냉을 호소하면서 때로는 가려움증과 악취도 동반할 때도 있다. 위의 주원인은 질 및 외음부 염증이다. 약 4~6세 정도 되면 배변 후 아이가 혼자 닦는데 이때 항문과 질 사이간의 거리가 짧거나 닦는 과정에서 대변이 질 입구에 묻으면 염증을 일으킨다. 치료는 며칠 정도의 항생제 투여로 충분하다. 물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른이 배변 후 과정을 잘 감독해야 한다.

사춘기

요즘은 초등하교 졸업할 때쯤 벌써 생리를 시작하는 여자아이가 많다. 대개는 11~16세 사이에 첫 월경을 시작하게 된다. 사춘기 때의 월경은 흔히 불규칙하고 양도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춘기 때의 여성호르몬 분비가 아직 미성숙해서 배란현상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경 이후에 약 1~2년까지는 월경은 매우 불규칙하고 양이 많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양이 많아서 빈혈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의 성숙함과 같이 월경이 차츰 정상으로 돌아온다.

가임기 (20 ~ 40대)

가임기 여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강 관리를 해야한다.

■ 산부인과 진찰 (내진) 및 자궁경부암검사 (세포진검사)

- 첫 성교 후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는다.
- 본 검사는 자궁경부암과 관련되는 질환만 검사하는 것이다.

자궁경부암의 증상은 주로 질 출혈인데 이 현상은 월경간 출혈, 성교후 출혈, 배변시 출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담홍색 또는 약간 피가 묻은 형태의 질 분비물이 생길 수도 있으며 심해지면 2차 감염을 초래하여 악취를 발산하게 된다. 그러나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또는 초기암일 경우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과 소견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증상이 없어도 선별검사인 자궁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초음파검사

- 본 검사로는 주로 자궁 및 난소에서 발생하는 종양들을 검사한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에서는 질식 초음파검사가 복식 초음파검사 보다 매우 우수하고 보다 더 정확하다.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1년에 한번씩 검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자궁경부와 달리 난소는 배속에 들어 있으므로 종양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암이다. 따라서 난소종양(양성, 악성 모두 포함)에서만 나타내는 특별한 증상이 따로 없다. 소화불량, 빈뇨, 골반통, 배가 나오고, 배에서 혹이 만져지고, 복수가 차는 등 불특정한 증상을 보인다.

- ♦ 월경양이 많아진다
- ♦ 월경이 오래 지속된다 (1주일 이상)
- ♦ 월경시 아랫배 통증이 심하다
- ♦ 월경이 끝났는데도 계속적으로 소량으로 나온다
- ♦ 월경시 선지 같은 덩어리가 많이 나온다
- ♦ 월경을 너무 자주한다 (예-보름마다 한다)

• 자궁의 혹(근종, 선근종, 자궁내막 용종 등)은 모두 초음파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혹이 작을 경우에는 별 증상이 없지만 컸을 경우 다음과 같은 월경의 이상을 나타낸다.

■ 유방검사(촬영)

자가 유방검사는 매월 월경 직후 손으로 양쪽 유방을 만져보아서 혹같은 이상이 만져지는지 보는 검사다. 유방촬영검사는 단순한 X-선 검사와 유방 초음파검사가 있다. 권장하는 검사 시기는 40세 이후부터 매년이다.

폐경 후

폐경 후에는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여러 가지 몸의 이상이 나타난다. 골다공증 뿐만 아니라 피부의 노화, 질로부터의 분비물 감소로 인한 부부관계의 어려움, 비뇨기 계통의 손상으로 인한 문제 등이다. 현재 의학연구에 의하면 약 5년까지의 여성 호르몬 투여는 안전하다고 하며 위의 여러 가지 몸의 이상을 도와준다.

장 기 홍 교수 / 산부인과학교실

잊을 수 없는 환자

조금 더 아픈 마음을 잘 이끌어 주었더라면…

당뇨전문간호사는 당뇨인들의 마음을 읽어 주고 고충을 들어주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이 주업무다. 병동간호사 시절 당뇨인들을 만날 때는 막연히 「혈당조절만 잘하면 되는 병」이라고 쉽게 생각했었다. 그 후 당뇨전문간호사로 일하게 되면서 매일 만나게 되는 당뇨인들을 보니 「혈당조절이 참 쉽지 않구나」 또 한편으로는,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

그 동안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내 마음 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 친구가 있다. 웬만한 농구선수같이 큰 키에 말수가 적고, 소리 없는 웃음으로 답하던 승훈이(가명)!

승훈이는 대학생 또래인데,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여러 대중음식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던 젊은이다. 지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어머니,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아버지, 가출해 소식이 끊긴 누나. 이런 환경 속에서 소아당뇨병을 앓았던 승훈이. 한창 젊음을 만끽할 만한 나이에 늘 얼굴이 어둡던 그다.

처음 만났을 때는 아버지와 열심히 교육을 받고 혈당측정도 인슐린 주사도 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래진료도 나오지 않고 인슐린이 다 떨어져서야 『약이 떨어져서 며칠 동안 인슐린 주사를 못 맞았어요. 오늘 약 좀 타게 해주세요.』 또는 『외래 오는 날을 깜빡 잊었어요. 오늘 외래 진료 좀 보게 해 주세요.』 하는 등 당뇨병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그러는 동안 혈당수치는 춤을 추고, 2~3개월 전 혈당치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수치도 높게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수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깨어났을 때는 후회의 눈물을 보였다. 그런 경험이 반복된 후에는 인슐린 펌프치료를 받게 되었다.

난 막내 동생 같은 생각에 다독거려주고, 꾸짖어도 보았다. 나중에는 내분비대사내과, 사회사업팀 선생님들과 어떻게 도움을 줄까, 병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알아보고 신경을 썼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 무절제한 생활도 문제려니와 무엇보다 병원에서 일하다보면 몸의 중요함을 깨우치고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승훈이는 자유로운 생활이 더 나았나보다. 전화방문을 해보면 낮에는 자고 있고, 그나마도 나중에는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해지된 상태일 때도 있다. 인슐린 펌프만 하면 저절로 혈당조절은 된다고 생각했는지 여전히 외래진료는 빠지고, 또 혼수상태로 병원에 실려오는 것이 반복되었다.

그런 승훈이가 죽음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맘 땐가 보다. 초록이 가득하고 더위가 시작된 때. 집을 나가 생활하던 중 아파트 벤치에서 혼수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경비아저씨가 발견했고, 그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음을 그 후 아버지를 통해 들었다. 장례를 치르고 찾아온 아버지는 『누군가 치료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세요. 말 안 듣던 승훈이를 위해 신경 많이 써주신 거 감사해요.』 하고 아들이 쓰던 인슐린 펌프를 건넸다. 그 기기를 볼 때면 「내가 조금 더 아픈 마음을 잘 이끌어 주었더라면…」 하는 씁쓸함이 든다.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도 당뇨병을 진단 받은 경우를 종종 본다. 당뇨병과 친구 삼아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자포자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당뇨전문간호사로서 건네는 격려와 다정한 말 한마디의 전화상담 같은 나의 조그만 역할이 그들을 다시 당뇨병과 벗삼아 열심히 자기관리 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난 오늘도 교육실에서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아주대병원 12층 회의실에서는 당뇨병교실이 개최된다. 김현 당뇨전문간호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혈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현 당뇨전문간호사

음식 속 건강

오염된 먹거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과거 우리의 소박한 꿈은 배불리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오늘날 우리는 과연 먹는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과거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서양 속담에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지나친 영양과다로 인한 식원병(食原病 :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비만, 암 등 음식 섭취와 관련된 질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오염된 먹거리로 인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 지를 불안해 하며, 심지어는 환경단체에서 아이들의 먹거리의 심각한 오염을 경고하는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라는 책이 나올 지경인 건강치 못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오염된 먹거리로 인해 광우병이나 O-157대장균감염 등 치명적인 질병이 국경을 초월하여 생명을 위협하고 참치를 먹으면서 수은 중독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잘 먹고 잘사는 법」에 대한 매스컴 보도 이후로 소식과 건강식 그리고 유기농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생산성만 강조하는 기업형 농축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환경 파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생태농업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있는 환경 위기,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및 자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 식품 안정성의 위기 등의 문제는 바로 산업사회 이후로 생산제일주의와 배금주의라는 인간 이기주의의 극단적인 부작용을 이제 인류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여 인류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해결점은 비교적 간단하다.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근본을 치유함으로써 순환고리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파멸의 대재앙에 대한 해결점이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개선과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말인가? 그 가능성을 프랑스의 생태농학자인 앙드레 뽀송의 명저 「분노의 대지」에서 밝힌 경험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 최대의 농산지 브르따뉴 지방의 목축업자이고 농업교육가인 앙드레 뽀송은 1954년부터 농업기술연구센터 창설하여 목초지 개선을 이용한 축산물 생산성을 증대시켜 생태 보존이 가능한 친환경축산법을 개발해왔는데, 1970대 미국에서 사료로 옥수수와 콩을 수입하고, 초지 방목대신 경작을 통해 사료 조달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산림 개간, 농약, 비료 살포, 토양 침식, 하천과 질산염, 살충제, 중금속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 해변 녹조 번식 등 환경 파괴와 이로 인한 폐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축산의 기업화, 즉 생산제일주의로 인한 결과로 대량의 가축 분뇨 발생, 방목의 포기, 과잉 생산에 따른 정부의 보상, 면역력 약화로 인한 전염병 발생과 예방적 항생제 투여, 성장 촉진제, 비료 및 농약의 사용 증가, 동물성 사료 사용으로 인한 광우병 발생, 식수 오염,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의한 먹거리 오염 등 심각한 사회적, 환경적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1982년 자립농업개발연구센터(CEDAPA)를 창설하여 생태농업으로의 회귀를 추진하여 현재 지역의 환경 오염을 줄이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며 프랑스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칠레 무역자유화 협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들이 타산지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과거 가격 감시 기능의 소비자운동에서 건강한 식품에 대한 감시와 환경 보호 운동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는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생태농업을 통해 생산된 무해한 농산물에 대해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면서, 그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건강한 순환고리는 인류와 자연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주 희 재 교수 / 병리학교실

아주대학교병원 영양연구회에서 콩, 된장, 두부, 차의 종류와 효능, 야채류와 비타민, 김치와 젓갈 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 속 건강」을 연재합니다. 영양연구회는 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아주대의대 교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주임교수를 주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신경통증클리닉 체험기

나는 아주대학교병원 신경통증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회복되어 정상적인 연구활동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과거 환자의 한사람으로 체험기를 씀으로써 나와 같은 증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쓴다.

나는 2001년 4월경 뇌졸중 증상으로 인해 수원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중에 언덕만 올라가면 좌측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증세가 생겼다. 집 근처에 있는 개원의에서 약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아주대학교병원 신경통증클리닉을 방문했다.

검사결과 혈관이 막혀있다는 진단에 따라 당일 입원 조치되어 다음 날 아침 약 1시간에 걸쳐 혈관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고, 그 후 일주일에 한번씩 신경통증클리닉 치료를 받다가 지금은 약 2개월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통증은 거의 없어졌고 정상적으로 아침 운동을 계속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간호사와 직원들의 사려깊은 관심과 정성을 다하여 환자를 돌보는 인간미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의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며 마음먹은 대로 치료가 되어 완치되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두 번은 병원을 찾게 되기 마련이다. 「의사를 잘 만나야 운이 좋다」고 말들을 한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치료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여 환자를 돌보고 인간미가 넘쳐나는 의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게 되어 치료의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경통증클리닉의 한경림 교수는 진실로 참다운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임을 재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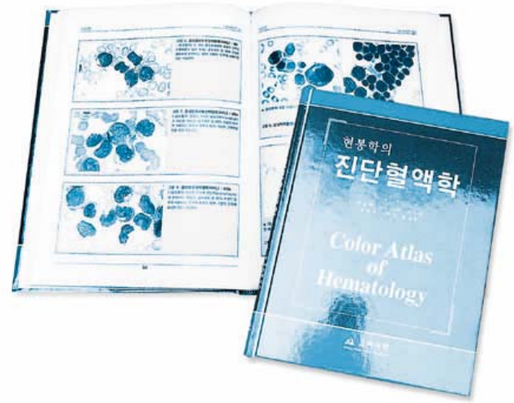
다시는 아픔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문제이다. 다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교훈을 벗삼아 항상 즐겁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느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한경림 교수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신 옥 식님 / 경기대 사회학부 교수

신간안내

현봉학의 진단혈액학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혈액학 도감



한국전쟁 당시 10만 여명의 민간인 피난민을 탈출시킨 「흥남 대 철수 작전」을 주도하여 「한국의 쉰들러」로 불리고 있는 前 아주의대 교수, 現 미국 토머스 제퍼슨의대 명예교수 현봉학(81세) 병리학 박사와 미국 토머스 제퍼슨의대 Gene Gulati 교수, 아주의대 조성란, 임영애, 이위교, 박일중 교수가 공동으로 「현봉학의 진단혈액학」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책 「진단혈액학」은 현봉학 교수가 지난 50여 년 간의 교수생활을 정리하면서 의과대학 학생, 수련의, 전공의, 보건대학 학생, 임상병리사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혈액학 도감이라 할 수 있다.

* 출판사 : 고려의학
* 분　량 : 178페이지, 칼라
* 가　격 : 18,000원
* 문의처 : 도서출판 고려의학 02-765-0333

내용을 살펴보면, 1장 말초혈액 도말검사, 2장 골수생검과 천자, 3장 말초혈액의 정상세포, 4장 적혈구 이상, 5장 백혈구 이상, 6장 혈소판 이상 , 7장 골수의 정상세포, 8장 백혈병, 9장 세포화학, 10장 골수이형성증후군, 11장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12장 형질 세포 질환, 13장 감염성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마다 검체, 슬라이드 제작과정, 다양한 검사결과 사진들을 칼라로 제공하고 있어 혈액학과 관련하여 필요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봉학 교수는 미·중 한인우호협회 회장, 장기려·안창호·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전개, 「윤동주 문학상」 제정 등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유명하지만, 펜실베니아의대에서 의학박사학위 취득, 미국 토머스 제퍼슨의대 명예교수, 미국 임상병리학회 교육공로상 수상, 미국 윌렌버그병원이 병리학교실을 「현봉학 병리검사실」로 명명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의학자이다.

병동 클릭

사랑이 꽃 피는 CCU (심혈관계 집중치료실)

병원의 꽃으로 불리우는 중환자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심장과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CCU를 둘러보았다.

순환기내과 최소연 교수가 말하는 CCU

심혈관계 집중치료실(CCU)은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같은 순환계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집중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질환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고 치료 중에도 심장마비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관리 및 치료가 요구된다.

아주대병원 심혈관계 집중치료실은 병원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같은 층에 순환기내과 외래, 심장기능검사실, 심도자실, 수술실이 있어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이에 따른 빠른 치료가 가능하고, 특히 혈관확장술 등의 시술이 이루어지는 심도자실이 바로 옆에 있어 응급시술이 필요한 경우 수분 내에 치료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집중치료실 내에는 환자가 치료 받는 8개의 작은 방이 있고 각 방마다 혈압 및 맥박 등의 생명증후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방의 정보를 한 곳에서 동시에 관찰, 기록하는 중앙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된 방을 갖춘 심혈관계 집중치료실은 국내에서 흔하지 않은데 질환이 매우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의 사생활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런 시설 및 시스템에서의 장점 뿐 아니라 집중치료실과 심도자실 내에는 전담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으며 「심장」의 치료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 간호사들에 의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CPR』

『여기 에피, 아트로핀 주세요!』

『도파, 도부타 연결해 주세요!』

조용하던 병동이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에게 힘드니 그만 쉬라며 걱정해 주시던 환자에게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했다. 이쯤 되면 CCU 간호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빠르게 시행한다. 한 명은 E-box를 잡고 필요한 약을 준비하고, 한 명은 하드보드를 깔고, 한 명은 환자 활력증상 및 의식상태, 동공을 확인하고, 한 명은 보호자를 찾고…. CCU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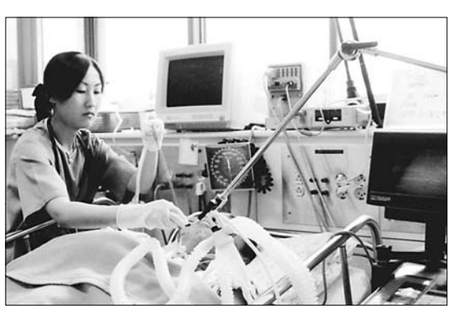
평소에는 환자들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지만 심장질환 특성상 이러한 응급상황은 순식간에 발생한다. 바로 일분 전에 간호사들과 농담하며 즐겁게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런 부정맥으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CCU 간호사들은 그러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순발력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심장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라 1분 1초가 생명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한편, CCU는 매우 가족적인 곳이기도 하다. 심혈관계 치료를 하는 분들은 충분한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그래서 이 곳은 다른 집중치료실과 달리 모든 침상이 개별적으로 구분(isolation room)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은 환자와 간호사가 한 공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고 환자와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 환자들은 매우 편안해 한다.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나, 집에 갈 거야」하며 속상해 하시던 할머니도 몇 시간 후에는 손자를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하시고, 외국에서 사셨다는 할아버지는 「Hi」하며 들어오는 간호사들마다 인사도 하신다.

또한 단일 임상과의 중환자실이라는 특성이 구성원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 주어 순환기내과장 탁승제 교수님을 비롯하여 자상하면서도 터프한(?) 교수,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전공의, 무한한 능력을 가진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간호사, 하루 수십 건의 검사 및 시술을 묵묵히 수행하는 심도자실 기사 등 구성원 모두가 한 가족같이 지내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환자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CCU는 중환자실이면서도 늘 웃음이 있는 곳이다.

CCU의 수간호사인 조영선 간호과장은 『조용하지만 역동적인 순간이 많은 곳, 아담하지만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넘치는 곳. 그 곳이 바로 CCU』라고 말한다.

▲ CCU(심혈관계 집중치료실) 소속 간호사들.



박현선 베테랑 간호사가 말하는 CCU

CCU에서의 근무경력이 5년이 넘은 박현선 간호사는 늘 새로운 의학지식을 빨리 접할 수 있고, 그것을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오는 성취감 때문에 CCU에서 근무하는 것이 즐겁다.

응급상황에 대처능력이 뛰어나다는 박 간호사는 의사와 동료 간호사, 환자, 보호자들과의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남달리 좋다는 평까지 듣고 있다. 이에 박 간호사는 타 부서에서 보기 힘든 상호 신뢰와 팀웍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다른 부서원들에게 공을 돌린다.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중환자들은 방금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때마다 CCU의 간호사들은 환자의 임종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자는 마음가짐으로 근무에 임한다. 밤새 병상을 지키며 돌본 환자가 기적같이 회복해 CCU를 나갈 땐 자신감과 기쁨을 느끼는 박현선 간호사는 『CCU는 환자들과 의료인과의 관계가 다른 곳보다 친밀하며, 집중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의 장점을 모아 놓은 곳』이라고 CCU를 정의했다.

의학리포트 ||

애완동물에 의한 알레르기질환 가능성 높아져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동물의 털, 비듬 혹은 분비물에 의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애완)동물 피부 알레르기 양성반응을 보인 소아환자 중 실제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보고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주대학교병원 소아과 이수영 교수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천식 및 만성비염을 주된 원인으로 소아과를 방문한 소아 228명을 대상으로 집먼지 진드기 2종, 동물상피 항원 5종, 기타 37종의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한 결과, 61.4%(128명)가 한 종류 이상의 동물에 의한 알레르기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이중 17명(13.3%)은 동물 상피에만 양성반응을 보인(집먼지 진드기 항원에는 음성 반응을 보임) 환자였으며, 특히 이중 6명은 개, 고양이 접촉 시에만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천식 및 비염 환자로 밝혀졌다고 한다.

한편, 소아 천식 및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양성반응은 70% 이상으로 나왔다. 이번 연구에서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에서 사용된 5종 동물에 대한 양성반응률을 살펴보면, 토끼털(40.3%), 고양이(33.1%), 개(24.0%), 말(16.8%), 소(14.9%)의 순이었다고 한다.

이수영 교수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 털이나 분비물이 어린이의 옷이나 몸에 묻혀 학교나 보육시설로 옮겨지거나, 도둑고양이 등에 의해 어린이들이 동물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연구결과 동물에 의한 알레르기 양성 반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일한 원인으로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관찰된 만큼 기존에 알려진 다른 알레르기 유발원인들과 함께 동물에 의한 알레르기질환 또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경인일보, 경기일보 등에 게재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Zoom & Zoom

최진혁 교수, 미래 의학을 이끌어갈 촉망받는 의학자

지난 6월10일 제29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SK 학술상을 수상한 최진혁 교수는 국내외적으로 미래 의학을 이끌어 갈 촉망받는 젊은 의학자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수년간 「Cancer」, 「British Journal of Cancer」, 「Lung Cancer」 등 권위있는 국제 암 학술지에 위암 및 폐암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세계 3대 인명 정보기관 중 하나인 미국 인명정보기관의 『21세기의 뛰어난 지성인』에 선정되어 2003/2004판에 등재 예정이며, 영국의 국제 인명센터도 『21세기의 뛰어난 과학자 2000명』 중 한명으로 최진혁 교수를 선정하여 2004년 판에 등재 예정이다. 최진혁 교수는 작년에도 국제인명센터에서 「올해의 세계과학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수상한 SK 학술상은 대한암학회가 2001년부터 국내기관에서 연구되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임상, 기초 각각 한편씩 선정하여 주는 상으로, 최진혁 교수는 작년 5월 British Journal of Cancer에 발표한 「근치적 위절제술후 5-FU 및 doxorubicin을 근간으로 하는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위암환자에서 MRP1, Pgp 그리고 TS의 발현」이란 논문이 위암의 예후인자 규명 등에 크게 공헌한 점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수상은 최진혁 교수 개인적으로 작년 대한암학회 「제2회 로슈 종양학술상」 수상에 이은 것이며, 2001년 같은 교실의 임호영 교수가 「제1회 로슈 종양학술상」 수상에 이은 것으로, 아주의대 종양혈액내과학교실이 국내 암 관련 대표적인 학술상을 3년 연속하여 수상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최진혁 교수의 경력은 화려하다. 연세의대 졸업후 연세대의대, 이화여대의대 봉직에 이어 96년 아주대의대로 자리를 옮긴 후 현재 아주대의대 종양혈액내과학교실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1999~2001에는 미국 최고의 암센터로 평가되고 있는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두경부/흉부종양내과에서 연수한 바 있다.

최진혁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김효철 교수님, 임호영 교수님 그리고 과원들의 적극적 지원과 관련 임상과간의 긴밀한 협조의 결과로 생각되며, 모든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받는 암환자의 치료성적을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 암 관련 연구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혁 교수의 전공분야는 암이다. 암치료 중에서도 위암, 폐암, 두경부암 및 유방암 환자에서의 항암치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암화학요법이 전문이다.

우 효 정 / 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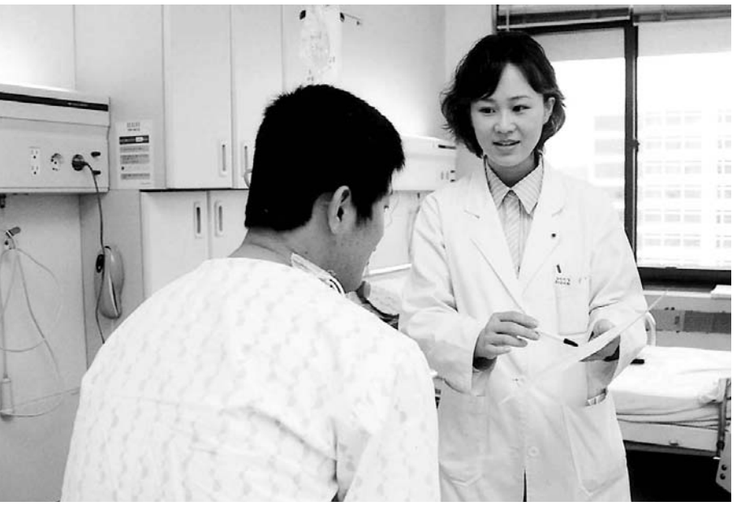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투석 환자의 선택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투석에 의존하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신장기능은 건강한 사람 신장의 약 30~40% 정도이며, 일단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증상이 있거나 검사 상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이미 60~70%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생활에 필요한 신장기능이 모자라는 환자는 이를 대체하는 치료방법이 필요하게 되며, 투석요법 (복막 또는 혈액)이나 신장이식 중 선택을 하게 된다. 치료의 선택은 환자의 의학적인 신체조건 및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되나, 일반적으로 신장이식이 생활의 질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평생동안 투석에 의존하여야 하는 환자는 많은 시간을 투석에 할애하여야 하며, 직장생활이나 여행에 제한이 있게 되므로, 젊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신장이식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겠다.

투석하는 환자가 신장이식을 주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제는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식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생활에 대한 희망은 있다. 가족 중에 제공자가 없는 경우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뇌사자의 신장이식을 위한 대기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이식의 기회를 이식 대기자들에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환자가 원하는 경우 가족과의 상담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장기 제공에 따르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는 자선단체와 연결하여 지원을 받는 절차를 도와주고 있으며, 모금사업을 진행하여 주기도 한다.

일부 투석하는 환자는 이식 후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저하기도 한다. 물론 이식 환자 모두가 평생동안 양호한 신장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약 10~20%는 약 5년 이내에 신장기능이 소실되어 다시 투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양호한 신장기능을 유지하며,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개원이래 100명 이상이 신장이식을 받았으며 양호한 임상성적을 보이고 있다. 투석환자들은 신장 이식 후 신장기능이 다시 나빠져 투석하는 일부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보면서 신장이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기도 한다. 신장이식 후에 대부분의 환자는 투석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므로 투석환자와는 접촉할 기회가 없게 된다. 투석에 의존하는 환자는 마치 신장이식 후에 많은 환자가 다시 투석을 하게 된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이식환자가 방문하는 외래시간의 진료실에서는 보다 많은 환자들이 만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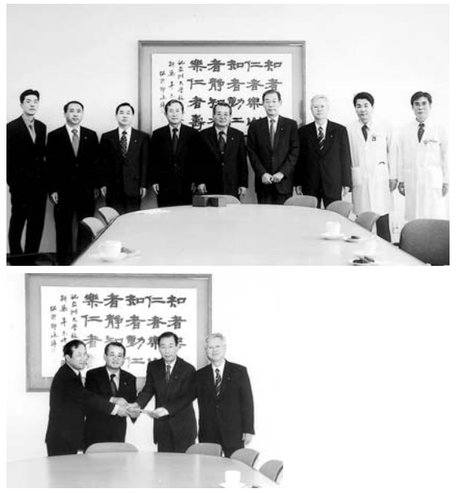
투석하는 환자가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인 용기로 이식을 결심한다면,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처한 어려움을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이다.

오 창 권 교수 / 외과학교실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이식 TFT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의료원 ▶▶▶

의료원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대우의료재단 · 거제병원



대우의료재단 이호영 이사장과 아주대병원의 자병원인 거제병원 정호근 병원장이 지난 6월17일 의료원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송재관 2층 회의실에서 가진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거제병원 정호근 병원장은 지난 2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실시한 경영진단에 따른 성의 있는 대안 제시로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주대의료원이 거제병원에 기여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와 아낌없는 지원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형외과학교실(강신영, 원예연, 민병현, 전창훈, 한경진, 김현정 교수)이 지난 6월16일 의료원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의과대학 ▶▶▶

의과대학, 대규모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예정

의과대학은 오는 9월27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신경과학 분야의 최신지견」, 「위암 발생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아주대학교 개교 30주년 및 의과대학 개교 1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을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학부는 아주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으로 오는 7월11일 오전 8시5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별관 대강당에서 「Anger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의학부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TF팀 구성 및 본격활동 개시

의과대학 의학부는 2+4제로의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 기초 및 임상 교과과정의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 6월부터 임무수행에 들어갔다.

TF팀 위원은 왕희정 의학부장(위원장)을 위시해 병리학교실 이기범 교수, 피부과학교실 이은소 교수, 해부학교실 이영돈 교수, 약리학교실 주일로 교수, 정신과학교실 임기영 교수, 호흡기내과학교실 황성철 교수, 치료방사선과학교실 강승희 교수, 미생물학교실 박선 교수, 산부인과학교실 김미란 교수, 가정의학과교실 김범택 교수, 생화학교실 이재호 교수(간사) 등 12명이며, 임기는 2003년 6월부터 완료 시까지다.

의학부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TF팀은 우선 기초와 임상 두 개의 Sub-TFT를 두기로 하고, 기초 TFT는 이기범 교수가, 임상 TFT 는 이은소 교수가 팀장을 맡기로 했으며, 이재호 교수와 임기영 교수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또한 TF팀은 지난 6월21일(토)에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교육의 제반 원칙과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에 관한 임기영 교수의 강의 및 토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Advanced Gastroenterology Update 2003 성황리 개최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은 지난 6월15일 일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별관 대강당에서 「Advanced Gastroenterology Update 2003(Post-American DDW Conference)」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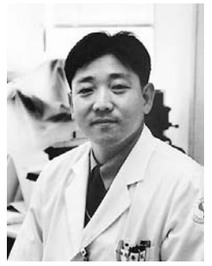
올해로 4번째를 맞는 「Advanced Gastroenterology Update」는 DDW(미국소화기병주간) 동안 발표되는 논문 중 국내 소화기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유익한 논문을 선정하여 리뷰하는 자리로 올해는 아주대의대를 비롯하여 가톨릭대의대, 고려대의대, 서울대의대, 순천향대의대, 연세대의대, 울산대의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부 위장관 질환, 하부 위장관 질환, 상부 소화기내시경, 운동성 질환, 간질환, 췌장질환, 담도질환 등으로 세분화하여 세계적 연구추이가 발표되었으며, 이날 강연장에는 미국 DDW에 발표된 국내 포스터 연제들이 다시 전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중앙혈액내과학교실 최진혁 교수, SK 학술상 수상 및 의과학연구소 석사과정 김은희 GSK 학술상 수상

의과대학 종양혈액내과학교실 최진혁 교수가 지난 6월10일 개최된 제29회 대한 암학회 학술대회에서 SK 학술상을 수상했다.

SK 학술상은 2001년 제정, 암학회가 국내 기관에서 연구되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임상 및 기초 각각 한편씩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최진혁 교수는 지난 2002년 5월 British Journal of Cancer에 발표한 「근치적 위절제술 후 5-FU 및 doxorubicin을 근간으로 하는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은 위암 환자에서 MRP1, P-gp 그리고 TS 의 발현」이라는 논문이 위암의 예후인자 규명 등에 공헌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번 수상은 최진혁 교수 개인적으로 작년 대한암학회, 「제2회 로슈 종양학술상」 수상에 이은 것이며, 2001년 이호영 주임교수가 「제 1회 로슈 종양학술상」 수상에 이은 것으로, 아주대 의과대학 종양혈액내과학교실이 국내 최고의 학술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관련기사 15 페이지 참조〉.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의과학연구소 석사과정 3학기 김은희 학생(지도교수 : 최경숙)이 「Roscovitine plus TRAIL is cytotoxic to TRAIL-resistant glioma cell lines」라는 연제를 발표하여 GSK 학술상을 수상했다.



비뇨기과 최종보 교수, 애보트학술논문상 수상

비뇨기과학교실 최종보 교수가 지난 5월31일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주최로 열린 「The Joint Tumor Conference」에서 애보트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의 제목은 「PC3 세포주에서 Doxetaxel에 의해 유발된 세포고사에 대한 Sulfated Glycoprotein-2(Clusterin)의 작용에 대한 연구」로, 호르몬 저항성 전립선암의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항암제인 Doxetaxel의 작용기전 및 유용성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최종보 교수가 수상한 애보트학술논문상은 2002년 대한비뇨기학회지에 발표된 비뇨기종양에 관한 논문 중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논문을 선정, 수여하는 상이다.

소화기내과 정재연 교수, 우수구연상 수상

소화기내과학교실 정재연 교수가 지난 5월30일 2003년 춘계 간학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구연 제목은 「만성 B형 간염과 Interleukin-10 (IL-10) 및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유전자 다형성과의 상관관계」이다.

2004 수시모집
의학부 52.8:1, 간호학부 25.3:1

아주의대는 2004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전형 결과 의학부 52.8대 1(모집인원 4명), 간호학부 25.3대 1(모집 인원 4명)의 경쟁률을 보여 우수 의과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

간호학부, 현장실습 평가 워크숍 개최

간호학부는 지난 6월20일 오후 4시30분 송재관 제 5강의실에서 「현장실습 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03학년도 1학기 간호학부 현장실습을 마치며 실습평가에 따른 교육 및 방법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서울대 간호대학 서문자 교수가 「학생 임상실습 평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간호학부, 봉사동아리 「사랑 나눔」 봉사단 창단 및 결연식

간호학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동아리인 「사랑 나눔」 봉사단(지도교수 김용순 간호학부장)을 지난 5월17일 창단하고 5월24일(토) 무의탁 노인들의 거처인 중앙양로원(수원시 권선구 위치)과 결연식을 가졌다.

35명의 간호학부생들로 구성된 「사랑 나눔」 봉사단은 양로원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중앙양로원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찾아가 노인 회상 요법, 산책지지, 음악요법, 외상노인 피부 간호 등의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부과 강원형 교수, 한국인 피부에 적합한 기미 · 주근깨 치료제 개발

피부과학교실 강원형 교수팀이 기미 및 주근깨의 획기적인 치료제를 동아제약과 5년간 공동 개발해 국내 3상시험을 완료하고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멜라논 크림」은 기존 치료제에서 자주 발생한 홍반, 피부박리,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대폭 낮췄으며, 한국인에 대한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친 후 제품화되었다.

강원형 교수는 『현재 기미 · 주근깨 치료에 시술되는 레이저시술, 화학박피술, 냉동외과술 등이 부작용 발생과 시술부위 사후 관리 치료제 부재로 완치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피부관련 치료문화를 바꿔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멜라논 크림」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현봉학 교수 출판기념회 개최

진단검사의학교실은 지난 5월30일 금요일 오후 6시 송재관 지하 1층 선인재에서 현봉학 교수(前 아주대 진단검사의학교실 주임교수)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현봉학 교수가 출간한 책의 제목은 「현봉학의 진단혈액학」이다. 〈관련기사 11 페이지 참조〉

연구비 4억5천만원 수혜 – 간호학부 송미숙 교수

간호학부 송미숙 교수가 성남시 방문보건사업 및 치매환자관리 사업 민간위탁 공모에 선정되어 4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받게 됐다. 연구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다.

병원 ▶▶▶

응급의학과, 대량재해 대비 정기훈련 실시

응급의학과는 대량재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의사, 응급구조사, 응급전문간호사, 응급의료정보센터 직원, 구급차 기사, 행정직원 및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정기훈련에서는 이동 응급 의료세트의 적절한 사용과 의료진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대량환자를 분류하고 응급처치하여 적절하게 각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교육한다.

첫 정기훈련은 지난 6월9일 오전 11시 송재관 옆 잔디밭에서 시행됐다.

외래간호팀, 친절교육 워크숍 개최

외래간호팀은 지난 6월14일 오후 12시30분부터 8시까지 별관 대강당에서 「2003 외래간호팀 워크숍」을 개최했다.

「Professional Service and Manners」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직장인을 위한 미용강좌 ▲ 친절교육 ▲ MOT 훈련 ▲ 외래간호팀의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한 행동강령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신문,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 체	보도대상자	보도 내용
5. 29	중부일보	피부과 윤경한 교수	여름철 피부질환 - 무좀
5. 29	국민일보	외과 서광욱 교수	질병과 명의 - 대장암 · 직장암
6. 2	동아일보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자궁물혹, 내막증 유발 2배
6. 2	동아일보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신 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관절수술
6. 3	중앙일보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청진기 - 생리 아닌 출혈, 불임의 시작일 수도
6. 3	경인일보	소아과 이수영 교수	천식 · 비염아이들 애완동물털 조심해야
6. 3	중앙일보	소화기내과 이기명 교수	박태균의 음식 처방전 - 숙취
6. 4	경향신문	소아과 이수영 교수	애완동물도 소아 알레르기 주범
6. 5	조선일보	노경식 간호과장	'인기짱' 남자 간호사의 세계
6. 5	중부일보	피부과 강희영 교수	여름철 피부질환 - 여름철 유 · 소아 피부
6. 9	동아일보	알레르기 · 류마티스내과 서성희 교수	신 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류머티즘
6. 9	동아일보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체중관리 임신성 당뇨병 예방
6. 9	인천일보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임신중 당뇨 여성 출산 후 체중늘면 재발위험
6. 10	중앙일보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정형외과 김현정 교수	무릎 굽혀 공 꺼내야 '허리 안전'
6. 10	세계일보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분만후 체중 증가한 여성, 당뇨병 걸릴 확률 2배
6. 10	경인일보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살 빼면 당뇨병 예방
6. 11	조선일보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임신성 당뇨경험한 여성, 출산후 체중 늘면 발병 위험
6. 11	한겨레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	뜨거운 감자 수돗물 불소화
6. 11	경향신문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임신성 당뇨 앓았다면 분만후 체중관리 필수
6. 11	경기일보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임신중 당뇨 경험 여성, 분만후 체중늘면 당뇨병 위험 높다
6. 12	헤럴드경제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분만후 체중늘면 당뇨위험
6. 12	중부일보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분만후 체중관리 당뇨병 예방효과
6. 16	동아일보	비뇨기과 김세중 교수	신 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비뇨기 질환
6. 17	중앙일보	신경과 주인수 교수	박태균의 음식 처방전 - 편두통
6. 17	중앙일보	피부과 강원형 교수	문신 미용이든 패션이든 잘못하면 평생 후회
6. 17	중앙일보	산부인과 양정인 교수 진단방사선과 이은주 교수	임신중 약 복용 너무 과민
6. 17	경인일보	진단방사선과 이은주 교수	검진시 방사선 극히 미량 태아 성장 · 발육 영향 없어
6. 18	조선일보	종양혈액내과 임호영 교수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교수	암 환자들의 마지막 선택 '대체의학' … 효과있나?
6. 18	경향신문	호흡기내과 박광주 교수	오뉴월 감기
6. 19	국민일보	외과 소의영 교수	질병과 명의 - 갑상선
6. 23	한국일보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	강준만의 쓴소리 - 새만금 비판, 이대로 좋은가
6. 24	중앙일보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	박태균의 음식 처방전 - 피로
6. 24	경인일보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식물성 지방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6. 24	경인일보	소아과 황진순 교수	성조숙증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 체	보도대상자	보도 내용
6. 3	KBS 생로병사의 비밀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성인병을 지고 사는 아이들
6. 9	MBC 뉴스데스크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살찌면 당뇨 위험
6. 9	SBS 8시뉴스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산후비만, 당뇨위험 2배 높아
6. 9	YTN 수도권뉴스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출산 후 살 빼야 당뇨예방
6. 9	i-TV 종합뉴스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출산 후 살 빼야 당뇨예방
6. 10	KBS 뉴스광장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출산후 살찌면 당뇨발병 2배
6. 10	KBS 930뉴스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출산후 살찌면 당뇨발병 2배
6. 17	KBS 생로병사의 비밀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건강은 자궁에서 나온다
6. 17 ~ 21	SBS FM103.5Mhz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	이찬휘의 헬스 리포트, 삼차신경통 외 4건
6. 25	MBC 6mm세상탐험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수험전략, 여름을 잡아라

사회사업팀, 지원 소식

사회사업팀은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인 티나 환자와 신생아 에디젤의 치료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 지난 6월12일까지 모금된 1,800만원을 환자의 치료비로 전달했다.

또한 소아과에서 횡문근육종으로 치료받고 있는 5세 환아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백혈병소아암학회, ㈜삼성카드와 공동으로 5월 한달간 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6월13일 400만원의 후원금과 선물을 부모에게 전달했다.

삼성전기, 헌혈증서 기증

수원 삼성전기가 6월2일 월요일 오전 11시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사회사업팀에 헌혈증서 500장을 전달했다.

삼성전기 자원봉사 동호회는 지난 99년부터 컴퓨터 학습 자원봉사 및 야간 도서봉사에 참여해 왔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임질에 걸린 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Q 9년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질에 걸렸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다가 최근 비뇨기과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씩 배꼽 밑 양옆과 고환 부위에 통증이 오고 소변 시 요도가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A 임균성요도염이나 비임균성요도염에 대하여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완치가 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전립선염이나 요도염 등의 염증성 질환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소변검사나 전립선마사지검사를 시행하여 염증의 유무를 판별하여야 하고 염증이 없을 경우에는 「만성골반통증후군」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즉, 염증성 질환의 경우는 항생제와 소염제 계통의 약물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보조적인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 비뇨기과 최 종 보 교수 〉

비뇨기과 외래 031- 219- 5585

기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엄마가 기침이 심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오래 전에 걸린 결핵으로 인해 폐 기능이 완전치 못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침을 계속하면 너무 힘드실텐데 기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나라는 결핵이 매우 흔한 질환이므로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핵을 심하게 앓은 경우에는 폐에 섬유화와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폐 기능 장애가 초래되고 기관지확장증 등도 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기관지에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기침이나 객담 또는 객혈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폐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침을 계속해서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결핵 후유증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기관지 염증 등의 다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치료가 가능할 수 있고, 또 정확한 호흡기내과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호흡기내과 박 광 주 교수 〉

호흡기내과 외래 031- 219-4730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건강 Q & A / 잘못된 의학상식**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보 · 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2-721)
- **이메일** apr@ajou.ac.kr

스포츠 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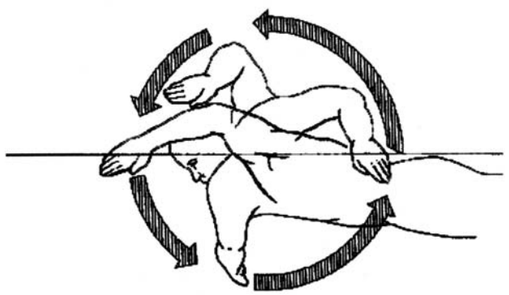
수영강사들이 외치는 자세교정, 다~이유가 있었다

부력이 작용하는 물속에서의 운동은 관절에 미치는 중력의 작용이 적다. 또한 수영은 축구나 농구에서처럼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수영은 운동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상이 적은 스포츠이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자주 수영을 하는 사람이나 수영 선수들은 역시 수많은 반복동작으로 인한 과사용 증후군을 겪기도 한다. 가장 잘 다치는 부위는 어깨이며 그외 허리, 무릎 등이 있는데 그 예방책과 주의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잘못된 영법이 원인인 어깨통증

어깨통증은 수영선수에게 흔한 문제로서 오랜기간 과사용과 작은 부상의 누적 때문에 발생한다. 어깨관절을 내부에서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rotator cuff)의 건염 혹은 이두박근 장건의 건염, 어깨관절 부근의 점낭액의 염증, 충돌증후군(impingement syndrome), 어깨 불안정성 등이 흔하다. 어깨부상은 특히 자유영이나 배영에서의 팔젓기 동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이 예방에 중요하다.

자유영 · 배영에서의 바른 영법



① 팔젓기 동작 중 물을 끌어 당긴 후 물밖으로 팔이 나올 때 손의 위치는 골반 근처가 좋다.
② 팔이 물밖에 있을 때나 물안에 있을 때나 팔꿈치는 손보다 윗쪽에 위치해야 한다. 팔꿈치 위치가 손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회전근개에 자극을 주게 된다.
③ 팔이 물밖으로 나와 있는 시기에는 몸통이 자연스레 그 팔쪽을 향해 회전해 주는 것이 좋다. 등 근육을 함께 쓰게 되어 팔근육 자체의 과부하를 덜어 준다.
④ 팔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입수하는 손의 위치가 어깨보다 살짝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이 좋다. 이는 물을 끌어 당기는 데에 효과적으로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자세이다.
⑤ 그 외 기타 물갈퀴나 킥보드 등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깨 근육을 보호하는 길이다.

요통과 무릎손상

수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요통의 원인은 미세한 반복에 의한 스트레스성 염좌나 골절, 척추분리증, 척추후만증 등이 있다. 흔히 물속에서 턴을 할 때 머리나 몸통의 위치가 좋지 않은 자세로 반복되므로 척추체에 부담이 크다.

한편, 평영(개구리 헤엄)에서는 발차기 동작 중 무릎이 반복해서 안쪽으로 꺾이게 되어 무릎 내측부 주변 근막 등이 손상되기 쉽다.

부상을 줄일 수 있는 예방법

이러한 부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번 수영을 할 때마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해주는 것이다. 5분씩이라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물속에서 살살 걷고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평소 몸을 전체적으로 가꾸고 만들어서 조화있는 근력과 유연성을 키워 두는 것이다.

수영 시 유의사항

① 준비운동을 하여 적절히 근육과 관절을 풀어 준다.
② 운동과 운동 사이에 휴식한다.
③ 수영 전 약 두 시간 동안에는 과식하지 않는다.
④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수영한다.
⑤ 폭풍이 칠 때는 수영하지 않는다.
⑥ 물에 들어가기 전 물의 깊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얕은 곳에서는 다이빙하지 않는다.

김 현 정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잘못된 건강상식

암 환자는 육식을 피해야 한다?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암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정보를 듣게 된다.

개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아마도 「먹는 것에 관한 정보」일 것이다. 「이런 것은 먹으면 좋다」, 「저것은 먹으면 큰일난다」, 「누구 누구는 무엇을 먹고 나았다더라」 등, 가뜩이나 암 선고로 마음이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게되니 환자들은 더욱 더 혼란스러워 무엇이 옳은 말인지 답답해 한다.

실제로 우리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건강식품을 비롯한 식이요법을 치료와 병행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가치료를 주치의와 상의없이 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항암 치료 중에 이유없이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소위 항암 버섯 종류를 먹어서 간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암의 발생과 식생활과는 다소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사람에게 위암이 많은 것은 맵고 짠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서구에 대장암이 많은 것은 붉은 고기(소고기 등)와 지방 섭취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암학회에서는 「암 예방의 7 가지 생활수칙」*에 이러한 음식을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음식과 건강을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수 마을에서는 무슨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오래 산다든지, 무슨 음식은 어떤 병에 좋다든지 하면서 건강에 음식을 가장 중요한 인자로 판단하곤 한다. 실제로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은 음식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오직 먹는 것으로만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정보 중에 암에 걸리면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해야 한다든지, 심지어는 화식은 안 좋으니 생식만 하라는 등의 내용이 많이 유포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식과 과도한 지방 섭취를 조심하는 것이 분명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암을 치료하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암 환자는 일반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정상인에 비해 훨씬 높아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진다. 게다가 암에 의해 식욕 부진이 생기고 항암 치료 때문에 더욱 더 식사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체중이 줄게 되고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 이러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채식이나 생식(심지어는 단식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도 있다)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영양 섭취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비슷한 정도의 병을 가진 암 환자에서 체중 감소가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비교해 보면 체중이 유지되는 환자에서 더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암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러저러한 정보를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이 약해진 암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마치 분명한 사실인 양 전해주는 것이 오히려 암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임 호 영 주임교수 / 종양혈액내과학교실

* 癌예방 7가지 생활수칙
① 담배를 피우지 말라. ② 지방과 칼로리를 제한하라. ③ 과도한 양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라. ④ 너무 짜고 맵거나 불에 직접 태운 음식을 삼간다. ⑤ 과일, 채소 및 곡물류를 충분히 섭취하라. ⑥ 적당한 운동을 하되 무리하지 않는다. ⑦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한다.

협력병원 탐방

우리 가족의 건강 파트너, 의왕 선병원

아주대학교병원과 직원연수교육, 진료의뢰 및 기술 · 경영 정보 교류 등을 교환하여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주민의 진료향상을 꿈꾸는 선병원

선병원은 작년, 5월 의료환경의 불모지였던 의왕시에 자리를 잡고 지상 7층 지하 1층 250병상 규모의 2차의료기관으로서 그 첫발을 내딛었다.

지역주민의 진료향상을 지표로 삼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여 진료하는 병원,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아닌 환자 중심의 병원을 구축하여 지역의료 발전을 향상시키는 든든한 지킴이가 되고 있다.

지역보건서비스의 선두

의왕시는 교통이나 산업적인 측면으로는 발전되었으나 의료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작년 5월 선병원이 개원되면서 이곳의 의료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1년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의왕시 건강축제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시행하였으며, 결식아동돕기, 장학금 제도, 당뇨 · 고혈압 건강교실, 비만교실, 금연교실, 일일건강교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병원으로 다가가 지역 보건 서비스의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최첨단 병원

선병원은 우수한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형외과 등 11개과 진료과를 두고 있으며, 개원 시부터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진료를 시작하였다. 전부서의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PACS SYSTEM)으로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송관 SYSTEM으로 챠트 불출에 따른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여 진료서비스를 극대화 하고 MRI, CT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환자 우선의 진료시스템을 갖춘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그 입지를 세워나가고 있다.

친절실천병원으로 한걸음 더!

『이제는 친절실천 병원으로』 선병원은 이제부터 뛰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환자의 입장에서 행하는 진료서비스가 병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원 초부터 전직원 친절교육연수와 『우리 가족의 건강 파트너』라는 뱃지를 전직원이 착용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실명제로 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진다」는 마인드로 고객만족을 실현시키고 있다. 또 병원 로비에서 시행한 문화행사, 이 · 미용서비스, 예약환자 문자발송 서비스, 전화예약제 등으로 계속적인 친절실천병원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다.

아주대 협력병원 체결로 의료발전을

선병원은 지난 2002년 2월 아주대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병원으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써 선병원은 점차적인 직원연수교육, 진료의뢰 및 기술 · 경영 정보 교류 등을 교환하여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객만족과 진료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역사회 최고의 병원으로서 거듭 성장할 것을 기대해본다.

김 영 배 팀장 / QI팀

유명인과 질병

유방암 치료법을 유행시킨 2名의 美 퍼스트 레이디
- 베티 포드 · 낸시 레이건 여사

최진실의 헤어스타일이나 김희선의 헤어핀 같이 인기 연예인의 패션이 유행하는 현상이나 사회지도층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등이 유명세를 타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다. 의료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여성질환인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 정도가 더 크다. 유명인사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면 혹시 나도 같은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유행을 따라하듯이 병원을 찾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지명도나 유명세가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

▲ 좌로부터 낸시 레이건 여사, 제럴드 포드 前 대통령, 베티 포드 여사.

1970년대 초 미국 포드 대통령의 영부인 베티 포드 여사와 부통령의 부인 해피 록펠러 여사가 비슷한 시기에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유방암 조기발견사업을 촉진시켰고, 미국 여성들 중에서 유방암 정기 검진을 받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 조기 유방암 발견률이 높아지고, 유방암 치료결과가 크게 향상됐다.

1987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여사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유방암 연구와 조기진단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검사 및 치료법이 크게 발전했다. 당시의 유방암 치료는 유방 일부만 절제하고 방사선치료를 받는 유방보존수술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낸시 여사는 수술 후 6주간의 방사선치료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당시 그녀의 선택으로 인해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유방 전절제수술이 선호되기도 했다.

1999년 3월호 미국 의사협회지에 의하면 낸시 여사가 수술받기 전인 87년 초에 비해 87년 말과 88년 초에는 일시적으로 유방보존수술이 25%나 감소했다고 보고됐다. 마치 유행처럼 치료방법을 따라하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지만 이 두 퍼스트레이디는 유방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유방암이 치료될 수 있는 병임을 보여줬고, 사회적 관심과 투자를 유발하여 유방암 치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유방암은 서구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나라도 2001년부터 여성암 중 유방암이 1위가 되었다. 조기 유방암은 90%가 완치 가능하고, 유방을 보존하는 치료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만이 유방암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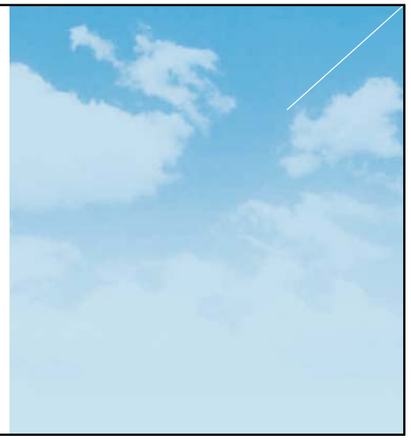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우리 나라의 젊은 여성과 유방조직이 많은 30~40대 여성은 유방촬영술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 초음파 검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경우 즉, 초산이 늦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 초경연령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유방암 전문가에게 검진을 받아야 한다.

유방암은 치료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미국 퍼스트레이디의 생명을 지켜주었듯이, 우리 나라 여성들도 유방암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 여류 명사들이 유방암 진단 및 치료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박 희 붕 교수 / 외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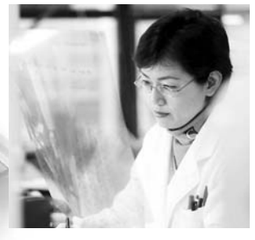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 · 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 · 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 · 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총 계

구 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 간	13명	24,500,000원	83,009,800원
누 계	303명	1,043,868,121원	895,707,121원

성 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故 ○○○	100,000	
김 경 희	500,000	의학문헌정보운영팀
대우의료재단 및 거제병원	10,000,000	이호영 이사장, 정호근 병원장
아주좋은과일	1,000,000	아주마트 내
정형외과학교실 스탭	10,000,000	(강신영, 민병현, 원예연, 전창훈, 한경진, 김현정 교수)
칼라화장품	300,000	아주마트 내
한 광 택	1,500,000	장례식장 매점
한통기획	100,000	
황 정 운	1,000,000	의학부4년 황은 학부모
분납 6월분	19,010,000	200명

(가나다순)
2003.6.9~2003.6.18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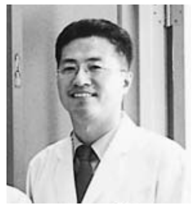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지로납입 전화신청 031-219-4000
- 자동이체 거래은행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무통장 입금 거래은행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제일은행 692-20-166907
  한미은행 542-00896-248
  농 협 116-01-060243
  국민은행 593501-01-082841
  우리은행 177-089499-13-102

● 후원내용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주대학교 의료원발전 후원회 사무국(031-219-4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게 시 판

산부인과 전문클리닉 진료 개시



산부인과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임클리닉을 지난 6월26일부터 개시했다.

불임클리닉은 기존에 생식내분비와 보존생식술을 전담해 오던 산부인과 황경주 교수와 김미란 교수가 진료하며 진료시간은 황경주 교수가 월, 수, 금 오전과 월, 금 오후에 진료하며, 김미란 교수가 화, 목, 토 오전과 화, 목 오후에 진료한다

〈 오른쪽 전문클리닉 시간표 참조〉.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 SBS FM라디오 「이찬휘의 헬스리포트」에 출연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가 지난 6월17일부터 21일까지 오전 8시40분부터 방송되는 SBS 라디오 이찬휘의 헬스리포트(103.5 Mhz)에 출연, 삼차신경통 외 4가지 질환에 대해 설명했다.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KBS1 「 라디오 동서남북」에 출연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가 6월23일, 24일 오전 9시에서 11시 KBS1 송지헌·신성원의 라디오 동서남북 특집방송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사는」에 출연해 고셔질환에 대해 설명했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 (운행간격 : 20분)

병 원 → 아주대 입구 (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비 옆) → 병 원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AjouMC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명 접수전화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관절염센터 4310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박해심	5902	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남동호	5902	해외연수중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서창희	5818	월, 화	화,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반응성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혈관염 및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관절염	
	서유진	5902	토		류마티스질환, 루프스, 통풍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명 접수전화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유전학클리닉 5979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클리닉 5896	김 찬	5897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한증, 수족냉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5897	화, 목, 토	수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일반진료	5897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암성통증 기타	
유방클리닉 4744	박희붕	4743	월, 화, 목*	목	유방질환 **(목 오전에는 맘모톰 시술만 시행)**	
	정용식	4743	수, 금		유방질환 및 갑상선 질환	
학습 및 발달증진 클리닉 5814	신윤미	5814		수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	화, 금	심리검사프로그램	

진료과	전문클리닉명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비고
소화기내과	간 암 클 리 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이기명	5963	수, 토	월	
순환기내과	심 부 전 클 리 닉 5717	최병일	5974	월		
		장혁재	5975	목		
호흡기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목	월, 수	
알레르기 류마티스 내과	벌독(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5905	월, 금		
		남동호	5905	해외연수중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목(19:00~21:00)	
피부과	안 면 색 소 클 리 닉 5917	강원형	5912	월, 화, 목	화(레이저치료)	
	모 발 클 리 닉 5917	윤경한	5914	화, 금	화, 금	
흉부외과	하 지 정 맥 류 클 리 닉 5752	최 호	5752	화, 목	화, 목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용삼	5664	수		
		김선용	5858			
성형외과	구 순 구 개 열 클 리 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 윤곽 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해외연수중		
산부인과	불 임 클 리 닉 5597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
안 과	콘택트렌즈클리닉 5673	문상호	5671		금(1주, 3주)	
	움직이는 의안 클리닉 5673	문상호	5671		금(2주, 4주)	
비뇨기과	요 실 금 클 리 닉 5585	최종보	5587	화, 금	수	
	야 뇨 증 클 리 닉 5585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 만 클 리 닉 5959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신상호	5957	목		
치 과	인공치아이식클리닉 5869	황병남	5869		화, 목	
		고석민	5869	월	수	
	턱 관 절 장 애 클 리 닉 5869	황병남	5957	월, 금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3년 7월1일 현재〉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진료과명 접수전화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소화기내과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췌·담도질환	
	함기백	5963	목	화, 목	위장질환	
	이광재	5963	수, 금	월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췌-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토	월	위장관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수, 목	간질환	★
	김도현			수	소화기질환	
	송현주			월	소화기질환	
	이은희			목	소화기질환	
	일반진료			금	소화기질환	
순환기내과 5717	최병일	5974	월, 화, 수		심장혈관질환	
	탁승제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신준한	5975	해외연수중		심장혈관질환,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초음파	
	황교승	5975	월, 목, 金	월	부정맥, 전기생리적검사, 전극도자절제술, 인공심박동기	
	윤명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소연	5975	금	수,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장혁재	5975	목, 금, 토	월	심장질환, 고혈압, 심부전	
	최태영	5975		목	고혈압, 심장질환	
	박재우	5973	토		외국인 진료	
	일반진료			화		
호흡기내과 4730	황성철	5967	월, 화, 금	목	폐결핵, 감염성폐질환, 폐암	
	박광주	5967	수, 금	월, 화 (해외연수 관계로 7월16일까지만 진료)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목	월, 수	에이즈, 원인 모르는 열,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발열, 기타 감염질환	
	오윤정	5968	월, 목	화, 금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신승수	5968	화, 수, 토	목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일반진료	5968		수	호흡기질환	
내분비대사내과 5954	이관우	5956	월, 수, 금	목	당뇨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정윤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일반진료	5961	토(재진)		내분비대사질환	
신장내과 4740	김흥수	4741	월, 火(신장이식 클리닉),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金(신장이식 클리닉)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일반진료	5971	토	화		
종양혈액내과 5990	김효철	5992	월,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형암	
	최진혁	5991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박준성	5991	화, 목	화, 수, 목	혈액질환, 종양	
	일반진료		토	월~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5902	박해심	5905	月, 수*, 金	수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남동호	5905	해외연수중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서창희	5818	월*, 화*	화*,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반응성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혈관염 및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관절염	
	서유진	5905	목, 토*	월, 화, 목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최정희	5905	화, 토	금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는 관절염센터 진료	
내과일반		5970	월~토	월~금		

진료과명 접수전화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소아과 5619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의학, 성장과 발달 *육아지도	
	김성환	5616	화, 목, 금	火	신경계질환, 간질	
	배기수	5623	월, 화, 금	金	신장학	
	이수영	5623	월, 수, 목	木	알레르기, 호흡기학	
	박문성	5617	월	月, 화, 금	미숙아, 신생아학	
	정조원	5621	木	월, 목	심장질환(화, 수, 금 오전은 심장 초음파 가능)	
	황진순		火, 금	火, 수	소아내분비 질환	
	박준은		水	월, 水, 목	소아혈액·종양	
	일반진료		월~토	월~금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 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신경과 5656	허 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치매	
	이필휴	5657	월, 토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간질	
	일반진료	5657	수, 목, 금	화, 목, 금		
정신과 5814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 및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이영문	5810	목, 토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노재성	5811	해외연수중		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월, 금	화, 수(학습 및 발달증진 클리닉 진료)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 자폐언어장애	
	일반진료		화, 목	목		
피부과 5917	이성낙	5912	水(예약)		베체트병, 화학박피술	
	강원형	5912	월, 화, 목	火(예약)	멜라린세포 질환 (화:레이저치료)	
	이은소	5913	수	월, 水(예약), 목	건선, 여드름, 베체트병(수:레이저치료)	
	윤경한	5914	화, 금	화, 金(예약)	모발질환, 알레르기·습진, 색소질환, 안면주름 (금 : 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월, 목	월, 木(예약)	백납, 무좀, 접촉피부염 색소질환 (목:레이저치료)	
	레이저치료			화, 수, 목, 금	예약에 의함	
	일반진료		월~토	월~금		
외과 5758	김명욱	5761	월, 수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 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왕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서광욱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박희붕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	
	김욱환	5756	화, 목, 토		간·담도·췌장 질환	
	한상욱	5754	수, 금	월	위·십이지장 질환	
	이국종	5753	목		외상외과, 소화기·소아외과	
	정용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갑상선 질환	
	김정운	4744	목, 토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219-6114
- FA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접수전화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전	오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외과 5752	이철주	5749	금	금	성인심장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외과, 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목	화	폐 · 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김정태	5750	토*	화, 목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토요일은 격주진료	
	강준규	5750	토*	수, 목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토요일은 격주진료	
정형외과 5545	강신영	5544		월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토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미세수술외과,사지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일반진료	5542	화, 토	수, 목,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신경외과 5664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월, 수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토	수, 금	뇌종양, 외상	
성형외과 5614	박명철	5611	월, 수, 금	월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
	박동하		화, 목, 토	화	수부성형, 미용성형	
	일반진료		월~토	월~금		
산부인과 5597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수술	
	양정인	5593	月, 困	월, 수, 목, 土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불임 및 복강경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산과, 부인과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불임, 산과, 부인과	
	일반진료		월~토	월, 수, 목, 금		
안과 5673	유호민	5669	월, 수, 금	月(예약), 水(예약)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0	월, 금	화	각막, 녹내장, 엑시머 • 라식수술	
	장윤희	5672	토	월, 목	사시, 소아안과	
	문상호	5671	화, 토	금	안성형, 백내장, 렌즈클리닉	
	일반진료	5671	월~토	월~금		
이비인후과 5747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화(난청클리닉)	월, 목	난청,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정연훈	5742	목(어지럼증)	화, 금	난청,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김철호	5746	수, 목(음성클리닉)	월	두경부 종양,음성장애, 기관 · 식도 질환	
	김현준	5746	토	화, 수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최호석		화, 금	목	부비동염, 두경부	
	일반진료		월~토	월~금		

진료과명 접수전화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전	오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기과 5585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종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최민규		토	화, 목	요로결석, 남성과학	
	일반진료		월, 수, 목, 금, 토	월, 수, 금		
재활의학과 5802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수손상	
	나은우	5796	화,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소아재활	
	일반진료		화	목		
진단방사선과 5823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
	원제환	5863		월, 수, 금	혈액투석혈관중재적치료,폐색혈관리,하지정맥혈전증치료	★
	일반진료	5145	수, 금, 토	화, 목		★
치료방사선과 5884	전미선	5884	월~토	월~금	종 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 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핵의학과 5939	윤석남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산업의학과 5644 5606	이경종	5645		화		
	박재범			목		
	일반진료	5644	토	월~금		
가정의학과 5959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샛별	5957	화	목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신상호	5958	목		비만	
	손중천	5958	화, 토	수, 목	갱년기, 금연	
	정유지		금	월		
	일반진료		월~금	월~금		
치과 5869	황병남	5869	월, 화*, 목*, 금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고석민	5869	화, 수	월, 화*,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이정근	5869	해외연수중			
	일반진료		월~토	월~금	재진환자만 가능	
					*는 별도 예약 ※ 토요일은 특진교수가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명 접수전화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전	오후	야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의학과 6001	조준필	6005	월, 수	금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윤석	6005	화, 목	수, 금	목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이국종	6005	금	월, 목	월,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